

2014년도 6월 28일 시행

서울시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한국사(A책형)

해설 - 전한길 교수(공단기)

1. 다음 ①, ②의 팔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나라로 옳은 것은?

- ① 시조의 성은 고씨인데, 기골과 모양이 뛰어나고 기이했다.
일곱 살에 의연함이 더하였고, 스스로 활을 만들어 쏘니 백발
백중이었다. ()의 속어에 활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 하니,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 - 『삼국사기』 -
② 개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고구
려와 더불어 근원이 ()에서 나왔다.”
- 『삼국사기』 -

- ① 신라 ② 백제 ③ 부여 ④ 가야 ⑤ 삼한

2. 고대에 만들어진 무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백제는 고분 벽화를 그리지 않았다.
② 고구려는 초기에 돌무지덧널무덤을 만들었다.
③ 가야는 무덤의 둘레돌에 12지신상을 조각하였다.
④ 신라에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무덤이 유행하였다.
⑤ 발해의 정혜공주 무덤은 모줄임 천장 구조를 하고 있다.

3.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한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 ① 귀족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녹읍을 혁파하였다.
② 통일을 자축하기 위해 임해전을 건설하였다.
③ 전국의 지명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④ 원산만과 한강 하류로 진출하였다.
⑤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4. 훈요십조를 남긴 고려의 왕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흑창 ② 계백료서 ③ 사심관제도
④ 기인제도 ⑤ 노비안검법

5. 고려 중기에 있었던 다음의 사실을 시기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인종이 이자겸을 숙청하였다.
- ㉡ 인종이 서경에 대화궁을 건립하였다.
- ㉢ 고려 조정은 금나라가 요구했던 군신관계의 외교관계를 수용하였다.
- ㉣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6. 다음 ㉠~㉡의 팔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에서 대부경 왕희걸, 우사낭중 유백인, 예부낭중 최복규, 원외랑 이응년 등이 서경 분사(分司)에서 토지를 겸병하여 재물을 모으고 있음을 탄핵하고 그들을 관직에서 파면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쫓았다.

- 『고려사』 -

㉡ 궁녀 김씨는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요석택(邀石宅) 궁인이라고 불렸다. 경주 사람 융대가 “자기는 신라 원성왕의 먼 후손”이라고 거짓말하고 양민 5백여 명을 노비로 만들어서 김씨에게 주었으며 또 평장 한인경, 시랑 김낙에게 주어서 후원자로 삼았다. ()에서 이것을 알고 심문하여 그 실정을 확인하고 이들을 처벌할 것을 왕에게 고하니 목종은 김씨에게서는 동(銅) 일백 근의 별금을 받고, 한인경과 김낙은 지방으로 귀양 보내라고 명령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치하하였다.

- 『고려사』 -

- ①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이라고 불렸다.
- ② 법의 제정이나 각종 시행 규정을 다루었다.
- ③ 국왕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간쟁을 하였다.
- ④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개폐 등에 동의하는 권한이 있었다.
- ⑤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권을 갖고 있었다.

7. 조선 후기 이양법(모내기법)이 도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은?

- ① 일부 자영농이 임노동자로 전락하였다.
- ② 수리 시설이 크게 확충되었다.
- ③ 벼농사에서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 ④ 보리 등을 이랑에 심는 방식이 확산되었다.
- ⑤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광작이 성행했다.

8. 제시된 자료를 읽고 이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의 직책은 재상 하나를 잘 뽑는 데 있다.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인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크다. 또한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재상은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아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재상의 역할이다.

- 『조선경국전』 -

- ① 집현전 학사로서 훈민정음 창제에 큰 공을 세웠으며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에 참여하였다.
- ② 도학 정치를 주장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훈구세력의 반발을 사서 기묘사화 때 죽임을 당했다.
- ③ 조준 등과 함께 급진적인 전제개혁을 추진했으며 고려왕조를 부정하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 ④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부당하게 겸병당한 토지와 강압에 의해 노비가 된 사람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 하였다.
- ⑤ 세조의 즉위를 비판하여 지은 <조의제문>이 무오사화를 불러 일으켰다.

9. 조선 시대 여러 국가기관과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의정부 – 국왕 다음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백관과 서무를 총괄했다. |
| Ⓑ 사헌부 – 지관(地官)·지부(地部)라고도 하며 재무, 조세, 호구 등의 국가 업무를 관장했다. |
| Ⓒ 승정원 – 백부(柏府)·상대(霜臺)·오대(烏臺)라는 별칭이 있었으며 감찰행정을 맡았다. |
| Ⓓ 홍문관 – 궁중의 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았다. |
| Ⓔ 예조 – 남궁(南宮)·춘관(春官)이라고도 하며 의례, 교육, 외교 등의 국가 업무를 관장했다. |
| Ⓕ 호조 –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기관으로 은대(銀臺)·대언사(代言司)라고 불리기도 했다.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10. 『주자서절요』를 집필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왕의 수신 교과서인 『성학십도』를 편찬했다.
- ㉡ 일본 주자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 ㉢ 아동들의 수신서인 『격몽요결』을 편찬했다.
- ㉣ 도교 신앙을 주관하는 소격서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11. 제시된 자료를 읽고 이 자료에 등장하는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고르시오.

국왕이 도원수 강홍립에게 지시하였다. “원정군 가운데 1만은 조선의 정예병만을 선발하여 훈련했다. 그러니 그대는 명군 장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만 말고 신중히 처신하여 오직 패하지 않는 전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 ① 신윤복은 주로 도회지 양반의 풍류 생활과 부녀자의 풍습 그리고 남녀간의 애정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 ② 종래의 공물을 현물 대신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 ③ 일본인의 무역 요구가 늘어난 것에 대해 조선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자 일본인들이 부산포, 제포, 염포 등 삼포에서 변란을 일으켰다.
- ④ 조선과 청의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
- ⑤ 기술직에 종사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고 탄탄한 실무경력을 쌓은 중인들이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다.

12. 제시된 자료를 읽고 다음 전교를 내린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봉당의 폐단이 요즈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 다른 봉당의 사람들을 모조리 역당으로 몰고 있다…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모두 같은 봉당의 인사들만이니 이렇게 하고도 천리의 공(公)에 부합하고 온 세상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 귀양 간사람들은 그 경중을 참작하여 풀어주고 관리의 임용을 담당하는 관서에서는 탕평(蕩平)하게 거두어 쓰도록 하라.

<보기>

- ⑦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였으며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체제 도 정비하였다.
- ㉡ 정국을 주도하는 봉당과 견제하는 봉당이 급격히 교체되는 이른바 환국이 일어났다.
- ㉢ 통치체제를 재정비하여 세도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했다.
- ㉤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복별을 준비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3.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 ① 불국사 다보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 ②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로, 오랫동안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다가 조선왕조 의궤와 함께 국내로 환수되었다.
- ③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천문학을 통하여 확립하고자 했던 시도의 일환으로 제작된 ‘천상 열차분야지도’는 고구려 때의 천문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 ④ ‘칠정산 내외편’은 원나라의 수시력과 아랍의 회회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역법까지 수용하여 편찬되었다.
- ⑤ 조선 세종 대에는 고려 시대 이래 의약학의 전통과 중국 의약학의 정보를 집대성하여 ‘향약 구급방’과 ‘의방유취’를 편찬하였다.

14. 대한제국의 성립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1년간 머물렀다.
- ②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함으로써 한반도 내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제국이 탄생하였다.
- ③ 고종이 경운궁을 증축하여 정궁으로 선택한 것은 이곳이 러시아 공사관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었다.
- ④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는 의회나 국민의 참정권 그리고 사법권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 ⑤ 평양을 서경으로 높이고 풍경궁이라는 행궁을 건설하여 양경(兩京)체제를 갖추었다.

15. 이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강도 일본이 헌병정치, 경찰정치를 힘써 행하여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모든 자유가 없어 고통과 울분과 원한이 있어도 병어리의 가슴이나 만질 뿐이요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정치 곧 이민족 정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멸망시키는 것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조선혁명선언>

- ① 1909년 미국 네브拉斯카에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14년에는 대조선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대비하였다.
- ② 1918년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조직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맡았다. 1921년 한인사회당을 고려공산당으로 개칭하였다.
- ③ 1918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약소민족대회 및 1919년 파리강화회의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파리에 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임시정부의 대표가 되었다.
- ④ 서일이 이끄는 대한정의단에 가담해 정의단을 군정부(軍政府)로 개편한 다음 사령관이 되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로군정서로 개칭하고 총사령관이 되었다.
- 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선과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에 반대하고 《신대한》을 창간하여 주필이 되었으며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주장하였다.

16. 다음 글에 근거하여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총독부는 1943년에 각 도 경찰부장에게 지시 명령한 '유림(儒林)의 숙정 및 반시국적 고비(古碑)의 철거'를 결정하고, 항일 민족 사상과 투쟁 의식을 유발시키고 있는 민족적 사적비들을 모조리 파괴하려 했다.

- ① 황산대첩비
- ② 조선왕조실록
- ③ 광개토대왕릉비
- ④ 황룡사 9층 목탑
- ⑤ 부인사 초조대장경

17.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 ⑦ 국민대표회의 소집 | ㉡ 한국국민당 창립 |
| ㉡ 한인애국단 조직 | ㉢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탄핵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8.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민주주의 원칙 하에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 ② 최고 5년간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 ③ 임시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④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사령부는 2주일 이내에 대표 회의를 개최한다.
- ⑤ 조선의 민족 대표로 하여금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게 한다.

19. 196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 자립 경제의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 ㉡ 근면, 자조, 협동을 구호로 내건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어,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 ㉢ 면방직, 설탕, 밀가루 등 이른바 삼백산업을 중심으로 소비재산업이 성장하였다.
- ㉣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일을 하였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행사하기 어려웠다.
- ㉤ 대학교,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며, 대학 진학률도 크게 높아졌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20.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 남과 북은 ...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체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체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보기>

- ㉠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을 가졌다.
- ㉢ 최초로 남북한 이산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 ㉣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발족하였다.

④ 배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및 해설

1. ③ 전한길필기노트 p.12,13

제시된 자료에서 “부여” 속어에 할 잘 쓰는 것을 주몽이라 한다. 백제는 건국 세력 온조 역시 고구려 동명 왕의 아들이고 백제 역시 부여를 계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족의 성씨 역시 ‘부여’씨이다.

2. ⑤ 전한길필기노트 p.58

고대 각 국가의 고분 양식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백제 고분에서도 벽화는 그려졌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6호분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 초기 양식이며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한 것은 가야가 아니라 통일신라이고 대표적인 무덤이 김유신장군 무덤이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은 백제 무령왕릉을 들 수가 있다. 말해 문왕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 무덤은 굴식돌방무덤이고 넷째 딸인 정효공주 무덤은 벽돌무덤이다.

3. ③ 전한길필기노트 p.18,56,59

신라의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이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경덕왕 때 김대성이 지은 것이고 경덕왕 때는 귀족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되었고 기존에 이두문자로 된 복잡한 지명을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중국한자로 바꾸었다. 녹읍혁파는 신문왕, 통일을 자축하기 위해서 안압지와 임해전[신라 궁궐터]을 지은 것은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원산만과 한강 하류로 진출한 것은 진흥왕 때이며 국학의 졸업시험인 독서삼품과는 원성왕 때[788]이다.

4. ⑤ 전한길필기노트 p.22

고려왕의 업적을 암기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로 훈요10조, 계백료서, 사심관과 기인제도는 태조, 노비안검법은 광종이다.

5. ④ 전한길필기노트 p.23,28

고려 중기의 여러 사건들의 연도와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이자겸이 금에 사대 수락한 것은 1125년, 이자겸의 난은 1126년, 서경에 대화궁 짓고 서경 천도 운동을 벌인 것은 묘청의 난으로 1135년이고 이를 진압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은 1145년이다.

6. ② 전한길필기노트 p.25

제시된 고려사의 두 자료에서 각각 부정 저지른 관리에 대해서 ‘탄핵’한 내용을 통해서 이 기관은 고려 어사대란 것을 알 수가 있다. 어사대는 관리 규찰뿐만 아니라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이 되어 서경, 간쟁, 봉박 기능을 통한 왕권 견제 역할도 하였다. 법과 시행규정을 다루는 것은 귀족합의 제도인 식목도감이다.

7. ④ 전한길필기노트 p.47

조선 후기 이양법의 전국 보급이 가져온 결과를 묻는 문제이다. 이모작으로 인한 수확량의 증가와 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이양법은 정부의 억제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저수지와 보를 축조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이양법의 확대로 인한 노동력 절감은 결국 어떤 농민은 부농이 되고 어떤 농민들은 임노동자로 전락하게 하여 농민층 분화를 가져왔다. 밭농사에서 조선후기 농법은 기존의 이랑에 씨앗을 뿌리

는 농종법 대신에 고랑에 씨앗을 뿌리는 견종법이 확산되었다.

8. ③ 전한길필기노트 p.24,29,30

제시문의 조선경국전은 역성혁명을 통해 조선 건국을 주도한 정도전이 편찬한 조선 최초의 법전이다. 집현전 학사로서 계유정난에 참여하여 수양대군의 충신이 된 자는 신숙주, 도학정치를 주창하면서 개혁을 주도하다가 기묘사화로 기묘하게 날아간 자는 조광조,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개혁을 주도한 자는 신돈, 조의제문을 지어 무오사화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김종직이다.

9. ① 전한길필기노트 p.31

조선의 중앙 정치조직의 기능을 묻는 문제이다. 처음 듣는 용어로 인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옳은 것을 찾아서 짹짓기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 찾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의정부는 국왕 다음으로 높은 재상 합의기구, 재무, 조세, 호구 등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것은 호조, 관리 감찰을 담당한 것은 승정원이 아니라 사헌부, 궁중 서적을 관리하고 문한의 기능과 경연과 서연을 담당했던 것은 홍문관, 교육과 외교 의례를 담당한 기관은 예조, 왕명 출납은 담당한 것은 호조가 아니라 승정원이다.

10. ① 전한길필기노트 p.67,68

조선시대 이황과 이이의 업적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주자서절요, 성학십도를 짓고 일본 성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이황, 격몽요결은 이이가 지은 어린아이 윤리서, 소격서 폐지를 주장한 것은 조광조의 업적이다.

11. ② 전한길필기노트 p.35,36,45,54,73,82

명의 파병 요청에 강홍립을 파병하고 종립외교를 펼치고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을 시행한 것은 17세기 초 광해군 때, 신윤복과 김홍도의 활약은 18세기 영·정조 때이다. 부산포, 제포, 염포의 3포 개항은 세종 때, 백두산정계비는 숙종 때, 철종 때 대규모 소청운동을 하는 등 중인들의 신분 상승운동은 18, 19세기이다.

12. ① 전한길필기노트 p.39

제시문은 영조의 탕평교서에 대한 내용이다. 영조는 낙형과 암슬형과 같은 악형을 폐지하고 속대전을 편찬하였으며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한국은 숙종 때, 세도정치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업적이고 복별은 준비하는 것은 효종 때와 숙종 때이다.

13. ③ 전한길필기노트 p.58,64,68

조선 건국 직후에 한 노인이 찾아와서 고구려 천문도 탁본을 바치자 “하늘의 명을 받은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성계는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들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불국사 다보탑이 아니라 석가탑에서 발견되었으며, 프랑스로 유출되었다가 반환된 것은 직지가 아니라 조선왕조의궤이다. 직지는 프랑스 외교관이 수집해간 것으로 여전히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칠정산 내편과 외편은 유럽의 역법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원나라 수시력과 아라비아 회회력을 수용하여 한양 중심으로 새롭게 제작한 것이다. 유럽의 역법을 받아들인 것은 효종 때 김육이 건의한 ‘시현력’이다. ‘향약구급방’은 고려시대 강화도에서 최우가 인쇄한 것이고, 세종 때 편찬된 의서는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이다.

14. ④ 전한길필기노트 p.81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 국체’는 전제황권 강화를 통한 전제주제를 담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과 사법권

등에 대한 규정은 독립협회에서 건의한 ‘헌의6조’에 들어 있다.

15. ⑤ 전한길필기노트 p.93,94,97,98

근현대사의 인물사에 대한 문제로 제시된 자료는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써준 의열단의 노선을 담고 있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다. 신채호 선생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 소식을 듣고 박용만과 함께 이승만 탄핵을 위한 ‘군사통일주비회’를 개최하고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주장하였다. 대조선국민군단은 박용만, 한인 사회당을 만들고 상하이 초대 국무총리를 맡았던 것은 이동휘,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것은 김규식, 북로군 정서 사령관은 김좌진에 해당된다.

16. ① 전한길필기노트 p.12,28,35,104

조선총독부의 ‘황일 내용을 담고 있는 비석의 철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서울시 7급 문제에서 가장 지엽적이고 시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을 잘 읽어보고 추론을 해보면 정답이 될 만한 것은 고려 우왕 때 이성계가 전라도 남원 운봉에서 아지발도를 비롯한 왜구를 섬멸한 황산대첩을 기리기 위해서 제작된 ‘황산대첩비’ 뿐임을 알 수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임진왜란 때 일부 소실]과 황룡사9층목탑과 부인사 초조대장경[몽골 침입 때 소실]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비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화재이다. 광개토대왕비는 일본이 비문을 왜곡하여[신묘년 기사]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입나일본부서설을 정당화하기 위한 비석이므로 절대로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였다.

17. ② 전한길필기노트 p.97,100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시기[연도]별 활동을 묻는 문제이다. 국민대표회의 소집은 1923년, 김구가 난징에서 한국국민당을 창립한 것은 1935년,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것은 1931년,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탄핵한 것은 1925년에 임시의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18. ⑤ 전한길필기노트 p.107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항목을 묻는 문제이다. 임시정부수립, 신탁통치,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미·소 사령부로로 하여금 2주일 내에 대표회의 개최등을 담고 있고 조선 민족 대표로 하여금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표현은 매끄럽지 못한 표현이다. 즉, 국민들에게 신탁통치를 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맞지만 ‘신탁통치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19. ④ 전한길필기노트 p.119

1960년대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내용을 묻는 즉, 연도를 묻는 문제이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1962년에 시작되었고 60년대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중심이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에 시작되었으며, 삼백산업은 50년대 무상원조 품목이고 무상원조는 58년에 중단되었다. 60년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과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 여건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회생이 있었다. 그 결과 1970년에 근로기준법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태일이 분신하였다. 대학교와 전문대학 등에 대한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8·90년대 이후 상황이다.

20. ④ 전한길필기노트 p.117,118

현대사의 남북 통일방안에 대한 정확한 연도를 암기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가)는 남북기 본합의서로 1991년 12월에 채택되었다. (나)는 2000년 6·15 공동선언이다.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결과 설치되었고, 경의선 복원 기공식은 2000년, 최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1차 북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KEDO의 발족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금강산 해로 관광의

시작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이다.